



보도자료

2025.5.15(목)

김현정 의원실 백정현 선임비서관(010 7455 7477)

“누구도 하지 못한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전환, 책임자는 이재명”

증권산업 17개 노동조합,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자본시장 개혁에 힘 실어

증권산업 17개 노동조합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지지선언은 이재명 후보가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역시 이재명 후보의 자본시장 개혁 비전에 대한 강한 지지와 공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증권산업 17개 노동조합은 이날 지지 선언에서 19일 앞으로 다가온 2025년 대선을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변명을 위한 새 시대를 여는 결정적 계기로 규정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1,400만 투자자의 권익 강화를 약속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증권산업 17개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자본시장의 근본적 한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동일한 실적을 가진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 주당 1만 원의 가치를 인정받지만, 한국 증시에서는 5천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명분 아래 대주주의 주식이 일반 투자자의 주식보다 몇 배 높은 가치로 거래되는 불공정 관행을 그 배경으로 꼬집었다. 노조는 “자본시장은 단순히 이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노동자의 땀과 국민의 꿈이 담긴 터전”이라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추진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온 이재명 후보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대전환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증권산업 17개 노조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한 ‘빛의혁명 시민본부’ 김현정 수석부본부장은 노조 측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권을 선택하는 선거를 넘어 대한

민국 자본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공정과 신뢰를 되찾아 국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기회”라며 “오늘 기자회견은 6만 증권노동자와 1,400만 투자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뜻 깊은 자리”라고 강조했다. /끝/



*지지선언문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누구도 하지 못한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전환의 책임자
‘이재명 후보’를 지지 한다.**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전환의 책임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누구도 하지 못했던 자본시장 개혁. 이제 그 대전환의 적임자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 6만 증권노동자의 일터이자 1,400만 투자자의 꿈이 실현되어야 할 대한민국 자본시장. 하지만 오늘날 그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동일한 규모, 동일한 실적을 올린 회사라도 미국에 상장돼 있으면 주가는 1만 원. 하지만 한국에 상장돼 있다면 절반도 안 되는 5천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불합리의 근본 원인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반 투자자의 1주가 만 원이라면, 대주주의 1주 역시 만 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선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명분 아래 대주주의 지분이 몇 배의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일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편취되는 구조가 묵인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불공정을 개선해달라 호소해왔지만, 역대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에 무관심했고, 고위 금융 관료들은 자본의 눈치를 보며 투자자의 눈물을 외면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복잡한 금융공학이나 대규모 재정 투입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필요한 제도들은 존재합니다. 다만, 새로운 정부가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우리 시장은 스스로 치유하고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개혁을 기대합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사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상법에 명시돼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여, 일반 투자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 선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 노후의 핵심 기반인 국민연금에 주식 보유에 따른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여 자산 가치를 제고해야 합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하고, 자본시장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추진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온 이재명 후보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대전환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책임자입니다.

6만 증권노동자의 염원과 1,400만 투자자의 희망을 모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5. 5. 15.

증권산업 17개 노동조합 일동

상상인증권 노동조합, 교보증권 노동조합, 대신증권 노동조합, 신한금융투자노동조합, 하나증권 노동조합, iM증권 노동조합, 한국투자증권 노동조합, SK증권 노동조합, 코스콤 노동조합,
NH투자증권 노동조합, KB증권 노동조합, 현대차증권 노동조합, 케이프증권 노동조합,
신한펀드파트너스 노동조합, NH아문디 자산운용 노동조합, 유안타증권 노동조합, 한양증권 노동조합